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번호

1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질문에 맞는 수화 표현은?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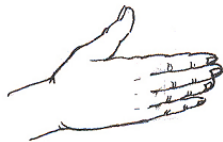


③

④



⑤



2. (물음) 교수가 진행할 방송 프로그램의 홍보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형식과 전통이 빚어낸 하모니, 바로크 음악
- ② 파격을 두려워하지 않는 화려한 음악, 바로크
- ③ 현대 음악이 주목하는 새로운 보석, 바로크 음악
- ④ 삶의 흔적이 묻어나는 생활 음악의 고전, 바로크
- ⑤ 대중이 참여하는 실용 음악의 선구자, 바로크 음악

3. (물음) '금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금성은 토성보다 밝다.
- ② 금성의 크기는 지구와 비슷하다.
- ③ 새벽 무렵 일출 전후에 금성을 볼 수 있다.
- ④ '개밥바라기'는 새벽 무렵에 보이는 금성의 다른 이름이다.
- ⑤ 금성을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6월에서 7월 사이이다.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두 학생이 청소년증의 활성화 방안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소년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게 한다.
- ②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제도화한다.
- ③ 발급 기관을 확대하고 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 ④ 경제적 혜택을 주어 자발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⑤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물음) 여학생의 말하기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 ① 익숙하고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 ②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다.
- ③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 ④ 상투어를 빈번히 사용하여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의 의견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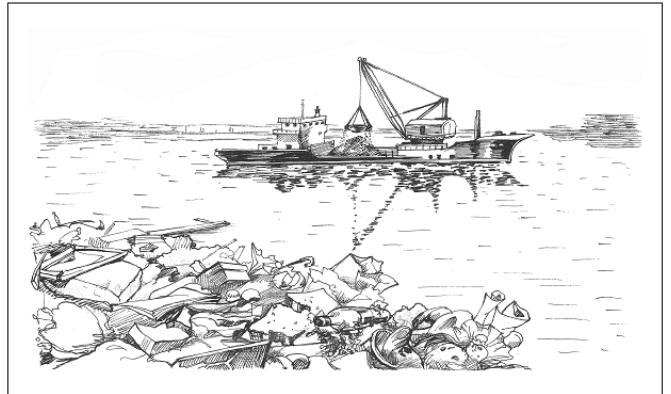
6. ‘분수’를 제재로 하여 ‘친구’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한다.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수의 모습	친구의 모습
①	넓게 퍼짐	이해심이 많은 친구
②	하늘을 향해 솟구침	높은 이상을 가진 친구
③	여러 물줄기가 조화를 이룸	소신이 뚜렷한 친구
④	물줄기를 끊임없이 뿜어냄	항상 노력하는 친구
⑤	아래로 떨어져도 다시 솟아오름	포기하지 않는 친구

7. <보기>에 따라 글쓰기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세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주 제 문 : 기부 활동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체계적인 기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자. 예상 독자 :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들 및 관련 단체	
독자 분석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기금의 모금과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전략 수립	○구체적인 수치와 다양한 예를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인다. ①
자료 수집	○우리나라 기부 형태의 문제점 및 현황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②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기부의 모범 사례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기부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령, 성별, 학력 등을 조사한다. ③
내용 선정	○우리나라는 1인당 기부액이 적고, 기부 활동이 주로 연말 연시에만 몰리고 있음을 지적한다. ④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맞는 기부의 방법으로 결연을 통한 소액 기부, 유산 나눔, 재능 기부 등이 있음을 예로 든다. ⑤ ○체계적인 기부 프로그램의 마련과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조직	○문제 제기, 문제점 분석, 개선 방안 마련, 실천 촉구의 순서로 논지를 전개한다.

8. 그림을 보고 공익 광고 문안을 작성하려고 한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 < 조 건 > —
- 의문문 형식을 사용할 것
 - 비유의 방법을 활용할 것
 -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언급할 것

- 도시 생활하수, 이제는 자원이다.
- 폐수 내의 오염물질을 분해해서 얻은 메탄가스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 올 여름 휴가,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 함부로 버린 쓰레기는 비가 올 때 강으로 흘러들어 강기슭을 오염시킵니다.
- 당신은 언제까지 산업 폐기물을 마시겠습니까?
- 지금도 산업 폐기물이 적절한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강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 미래에도 화가들은 아름다운 강을 그릴 수 있을 것인가?
- 현재의 오염 속도가 지속된다면, 미래의 화가들이 악취나는 검은 강물을 화폭에 담고 싶어 할까요?
- 인간은 언제쯤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될까?
- 자연이라는 자애로운 어머니 앞에서 과거의 인간은 순종하는 자식이었으나, 현재의 인간은 배은망덕한 자식입니다.

[9~10] '대체 에너지 개발'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하고 서론을 써 보았다. 9번과 10번의 물음에 답하시오.

9. <개요>를 작성한 후, 세 가지 글감을 접하였다. 개요를 보완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개요>

주제 : 대체 에너지의 개발
촉진을 위한 방안 필요

I. 서론

- 개념과 필요성

II. 본론

1. 개발 현황

가. 국외

나. 국내

2. 장·단점

가. 장점

나. 단점

3. 촉진 방안

III. 결론

-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대체 에너지 개발을 촉구

· <글 감>

7. 독일은 전체 전기 소비량의 9.3%를 대체 및 재생 에너지에서 공급하여 사용할 정도로 대체 에너지 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나. 정부가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원 금액을 올해부터 매년 20% 이상씩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세계 대체 에너지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기업의 참여가 예상된다.

다. 현재까지 설치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설비는 기후의 영향을 받아 보조 설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경제성이 낮고, 소규모 발전에만 유망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① ‘Ⅱ-1-가’에 ㄱ의 내용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대체 에너지 개발과 활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② ‘Ⅱ-1-나’에 ㄴ에서 착안하여 ‘소규모 풍력 발전기가 설치된 섬지역의 모습’을 사진과 함께 사례로 추가한다.
- ③ ‘Ⅱ-2-나’에 ㄴ을 ‘대체 에너지의 경제성 미흡’의 근거로 제시한다.
- ④ ‘Ⅱ-3’에 ㄴ과 관계 깊은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예산 증액’을 덧붙여 내용을 추가한다.
- ⑤ ‘Ⅲ’에는 ㄴ을 참고하여 ‘대체 에너지 시장의 확대에 따른 기업의 적극적 참여 촉구’를 덧붙인다.

10. 서론을 고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대체 에너지는 화석 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 일반적으로 ㉠고갈되어지지 않는 재생 에너지를 말
 한다. 예를 들면 태양광, 지열, 조력, 풍력 등이 대표적이다. 현
 재 개발 중인 것으로는 고속 중식료와 핵융합 에너지가 있다.

이들 대체 에너지는 깨끗하고 고갈될 염려가 없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너무 낮아, ㉡현대 문명사회와 같은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서는 실용성이 적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무공해이긴 하나 대용량의 에너지원으로는 부적합하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④사용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대체 에너지의 개발 추진을 위한 여러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 ① ㉠ : 잘못된 피동 표현이므로 ‘고갈되지’로 고쳐야겠어.
- ② ㉡ : 앞 문장의 내용과 반대가 되므로 ‘그러나’로 바꿔야겠어.
- ③ ㉢ : 문장이 자연스럽게 읽히므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현대 문명사회에서는’으로 고쳐야겠어.
- ④ ㉣ : 앞 문장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삭제해야겠어.
- ⑤ ㉤ : 문맥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응용’으로 대체해야겠어.

11.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접사는 단어의 어근에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형식 형태소이다. 이러한 접사가 결합하면 본래 단어의 의미가 한정되거나 새로운 의미가 부가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를 파생어라 한다. 파생어는 본래 단어의 품사가 변화되는 경우와 품사가 변화되지 않는 경우로 나뉜다.

[୧]

○ 깊-(‘깊다’의 어근) + -이(접사) = 깊이(형용사 → 명사)
○ 덧-(접사) + 신(어근) = 덧신(명사 → 명사)

- ① 개떡 ② 덮개 ③ 들꽃
④ 밤길 ⑤ 하늘

12.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1점]

- ① 할아버지, 올해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 ② 아직 여기에 도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③ 나는 학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 ④ 그 선생님은 국어를 교육시키는 분이다.
- ⑤ 보세요, 중이비행기가 잘 날라가지 않습니까?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한 잘못이 땃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A]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 돌처럼 잘아지고 굳어지나 보다.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①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 신경림, 「동해바다」 -

(나)

홍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넌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금(金)이 문제리,
황금(黃金) 벼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②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들어 내고
손발 닳은 처자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面)들아.

웃다가 서로 불쌍해
③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니.

그러다 금시

절로 면(面)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本)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 박재삼, 「홍부 부부상(夫婦像)」 -

(다)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향암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보리밥 꽃나물을 알맞추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릴 줄이 있으라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뒀을 바라보니
④그리던 님이 온다 반가움이 이려하랴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하노라

누고서 삼공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 낙뎛더라
아마도 임천한흥을 비길 곳이 없어라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아실사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
⑤다만당 님들 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으로 누웠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갇고자 하여도 하울 일이 없어라

- 윤선도, 「만흥(漫興)」 -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와 (나)에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다)에서 화자는 자신의 좌절감을 다른 대상에 의탁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화자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
- ④ (가), (나), (다)에서 화자는 연민과 동정의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14.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순을 뒤바꿔 놓아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있다.
- ② 경건한 어조를 사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공감각적 심상을 통하여 자연과의 친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고전 소설의 내용을 끌어들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⑤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1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억센 파도’와 ‘맴고 모진 매’는 함축적 의미가 유사하군.
 - ② ㉡ : ‘문제다’란 옳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중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해.
 - ③ ㉢ : 앞 구절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때, ‘구슬’이 의미하는 것은 눈물이야.
 - ④ ㉣ : 기다리던 임이 돌아와 기뻐하는 화자의 모습이 형상화 되어 있어.
 - ⑤ ㉣ : 세속적 이익을 놓고 다투던 당대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

16. 시적 화자의 태도가 [A]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
 - ② 꿈 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 유치환, 「바위」 -
 - ③ 우리 모두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자.
허공 뚫고
온몸으로 가자. - 고은, 「화살」 -
 - ④ 한밤중에 바람이 분다.
바람 속에서 애기가 웃는다.
애기는 방 속을 들쳐다본다.
들창을 열었다 다시 닫는다. - 김광균, 「온수저」 -
 - 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김소월, 「초혼」 -

17. (나)의 ‘거울면(面)’과 <보기>의 ‘거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यो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 이상, 「거울」 -

	(나)의 ‘거울면(面)’	<보기>의 ‘거울’
①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	단절감을 느끼게 한다.
②	그리움의 정서가 담겨 있다.	현실 극복 의지가 담겨 있다.
③	부정적인 상황을 암시한다.	긍정적인 상황을 암시한다.
④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소재이다.	
⑤	모두 이상향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18. (다)의 시구 중, <보기>의 내용을 뒷받침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창작한 작품의 특징 중 하나를 꼽으
라면 임금과의 관계가 작품의 근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윤
선도의 작품 또한 예외가 아닌데, 그의 한시 및 국문 시가를
살펴보면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작품들은 물론
이고 귀거래(歸去來) 내지 자연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들조차
도 대부분 연군지정(戀君之情)의 바탕 위에서 창작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 ①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 ② 보리밥 쫄면물을 알맞추 먹은 후에
- ③ 아마도 임천한홍을 비길 곳이 없으라
- ④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
- ⑤ 아무리 갇고자 하여도 하울 일이 없으라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묘호(廟號)란 ‘-조(祖)’, 또는 ‘-종(宗)’을 붙인 임금들의 호칭을 말합니다.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선조와 같은 호칭은 사실 왕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는 임금이 죽은 후에 신주를 모시는 종묘의 사당에 ㉠붙인 칭호이기 때문에 묘호라고 합니다.

묘호는 왕이 죽은 후 조정에서 의논해 정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창업 개국한 왕과 그의 4대조(四代祖)까지만 ‘할아버지 조(祖)’를 붙이고 그 뒤를 이은 왕들에게는 종통(宗統)의 계승자라 하여 ‘종(宗)’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왕의 경우에도 ‘조(祖)’를 붙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묘호를 정할 때는 흔히 ‘조공종덕(祖功宗德)’이나 ‘유공왈조(有功德曰祖), 유덕왈종(有德曰宗)’이라 하여, 공(功)이 많으면 ‘조(祖)’, 덕(德)이 많으면 ‘종(宗)’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이 많은지 덕이 많은지 판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관적인 것이므로 묘호를 정할 때의 의논에 좌우되기 마련입니다. 이로 인하여 때로는 조정에서 공론이 분열되어 소동이 일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 대개 ‘종(宗)’보다 ‘조(祖)’가 더 명예로운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신하들이 아첨하느라고 억지로 ‘조(祖)’를 붙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묘호는 후에 개정(改定)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인조(仁祖)의 묘호는 본래 열종(烈宗)이었는데 효종(孝宗)의 명령으로 고친 것이고, 영조(英祖)와 정조(正祖)의 묘호는 원래 영종(英宗)과 정종(正宗)이었으나 1897년 조선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개정하면서 종(宗)을 조(祖)로 고쳤습니다.

정종(定宗)과 단종(端宗)은 오랫동안 묘호 없이 공정왕(恭靖王)과 노산군(魯山君)으로 불리었으나, 숙종 때 와서 비로소 정하여 올린 묘호입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은 반정으로 축출되고 죽은 후 종묘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묘호가 없습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이라는 칭호는 왕자 시절에 받은 봉군(封君) 작호(爵號)입니다.

반면 왕으로 즉위하여 군림하지는 못하였으나 후에 왕으로 추존된 이들에게는 묘호를 올렸습니다. 성종(成宗)의 생부인 덕종(德宗), 인조(仁祖)의 생부인 원종(元宗), 헌종(憲宗)의 생부인 익종(翼宗)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왕자의 신분이었으나 사후에 아들들이 왕이 되어 국왕의 지위로 예우가 격상된 것입니다. 그러나 선조의 생부인 덕흥 대원군(德興大院君)이나 고종의 생부인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은 왕자가 아니었고, 또 계승의 차례에도 맞지 않아 왕으로 추존되지 못하였습니다.

19.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왕은 자신의 묘호에 대해 관여할 수가 없었다.
- ② 왕이었지만 묘호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 ③ 묘호는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조정에서는 왕의 생전 행적을 기준으로 묘호를 정했다.
- ⑤ 묘호 선정 원칙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도 했다.

20. 위 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통시적 관점에 따라 대상의 특성을 소개하고 있다.
- ②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③ 반론을 제기하고 비교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 ④ 통념을 비판하고 문헌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 ⑤ 핵심 개념을 소개하고 사례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21. <보기>는 위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보 기>—

- ㄱ. 태조는 조선을 개국한 왕이기 때문에 묘호에 ‘조(祖)’가 붙었군.
- ㄴ. 효종의 묘호로 볼 때, 왕으로서의 공(功)을 조정에서 인정 받은 것 같아.
- ㄷ. 연산군이 묘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죽은 후에 왕자의 지위까지만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ㄹ. 덕종은 왕으로 즉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종묘에 모셔지지 못했겠군.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2.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친구들끼리 별명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 ② 몇 가지 조건을 붙이고 계약하겠습니다.
- ③ 요즘 운동에 취미가 붙어서 즐겁습니다.
- ④ 이삿짐을 벽 쪽에 붙여서 쌓아 두었습니다.
- 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철 그 큰 동남풍’이란 말이 있다. 버스 떠난 뒤에 손 든다는 식으로 때를 놓쳤을 때 흔히 하는 말이다. 어떤 일이든 그 일에 맞는 적절한 때가 있기 마련이라는 뜻이다. 우리말 ‘철’은 계절을 지칭하기도 하고, ‘철들다, 철나다’에서와 같이 사리를 분별하는 힘을 나타내기도 한다. 제철을 모르고서는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뜻에서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말은 농경문화의 특징이 반영되어 절후에 대한 인식이나 그것을 부르는 명칭도 먹고 사는 일, 이른바 농사일과 결부되어 있다.

‘어정 칠월, 동동 팔월’이란 속담이 있다. 우리네 농가에서 7월 한 달은 하릴없이 어정거리지만 8월이 오면 갑자기 바빠져 동동거린다고 하여 일컫는 말이다. ‘동동 팔월’을 혹은 ‘견들 팔월’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바쁘긴 해도 견들바람처럼 그렇게 훌쩍 가 버린다는 뜻이다.

‘오월 농부, 팔월 신선’이란 말도 있다. 보릿고개의 절정인 음력 5월은 농사짓는 사람으로서는 더할 수 없이 어려운 시기다. 그러나 한가위가 낀 8월은 그 풍족함이 어떤 신선도 부럽지 않다는 데서 이런 말이 생겼다.

보릿고개의 말뜻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지난 해의 묵은 곡식은 이미 바닥이 났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은 음력 4~5월경, 흔히 춘궁기라 불리는 이때야말로 가장 춥고 배고픈 시기였다. 결코 높아서가 아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넘기 힘들다는 이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우리 조상들은 ‘간간 오월’이란 별칭을 덧붙여 주었다. 우리 조상들은 춥고 배고픈 시기를 지내면서도 그 어려움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돌려서 표현하는 ㉠풍위나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우리말은 감각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우리 민족은 본래 풍류를 즐기는 낙천적인 민족으로,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편이었다. 이러한 특징이 언어에 반영되어 우리말에 감각적인 어휘가 풍부하게 되었다.

계절 감각을 잘 드러내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른 봄, 살랑한 추위를 일컫는 ‘꽃샘’이란 말이 있다. 한겨울 추위보다 더 고약스런 봄추위에, 우리는 이처럼 멋진 이름을 붙여 주었다. 일종의 감정 이입법으로 꽃에 대한 동장군의 시샘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꽃이 피기 전 새싹을 시샘하는 ‘잎샘 바람’이란 말도 있지만 유명도에 있어서나 감칠맛에 있어서는 ‘꽃샘추위’, ‘꽃샘바람’에는 결코 미치지 못한다. 눈부신 설경을 일러 ‘눈꽃’이라 하고, 차창에 증기가 서려 생긴 무늬를 ‘서리꽃’이라 하는 것도 이와 유사한 표현이다.

우리말의 감각성은 추위를 나타내는 표현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선 ‘춥다’와 ‘차다’의 의미부터 구분된다. 찬 기운을 온몸으로 느낄 경우 전자의 ‘춥다’로 표현하고, 신체 일부에서 감지될 때를 후자의 ‘차다’로 표현한다. 또한 약간 추위를 느낄 때, ‘설렁하다’고 하는데, 이 말은 기후 표현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참, ㉡설렁하네…….”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남을 웃기려고 했으나 반응이 좋지 않을 때를 표현한 말이다. ‘산산하다, 선선하다, 오싹하다, 살랑거리다, 설렁대다, 선뜻하다, 설랑하다, 으스스하다’ 등의 어휘들도 그 쓰임이 마찬가지다.

23. 위 글에 나타난 언어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 대상을 추상적으로 표현한다.
- ② 음성과 의미가 결합한 기호 체계이다.
- ③ 형식과 내용 사이에는 필연적 관계가 없다.
- ④ 민족의 사고 방식과 삶의 모습을 반영한다.
- 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세계를 분절하여 표현한다.

24. ㉠이 반영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어정 칠월, 동동 팔월
- ② 오월 농부, 팔월 신선
- ③ 간간 오월
- ④ 살랑한 추위
- ⑤ 꽃샘바람

25. <보기>를 참고할 때, 어휘의 쓰임이 ㉢과 유사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른 나라 언어에 비해 우리말은 감각적 어휘가 발달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감각어가 풍부한 것이 우리말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정서적 유사성과 관련된 비유적 표현으로까지 발전합니다.

- ① 기름은 가벼워 물에 뜬다.
- ② 그는 괜히 싱겁게 웃는다.
- ③ 그 선생님은 학점을 짜게 준다.
- ④ 겨울바람이 맏고 사납게 불었다.
- ⑤ 병이 너무 무거워 완쾌하기 힘들었다.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강변 아파트 칠 등 십팔 층 삼 호에는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와 젊은 여자의 남편과 두 아이가 살고 있었다.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는 고부간이었다. 고부간의 의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젊은 여자는 좋은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을 받은 똑똑한 여자로서 매사에 완전한 걸 좋아했다. 비둘어지거나 모자라거나 흠나거나 더럽거나 넘치는 걸 참지 못했다.

그러나 사람의 행복이라는 데 대해서만은 대단히 융통성 있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아무리 행복한 사람에게도 한 가지 근심이 있기 마련이라는 게 그것이었다.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의 바로 이 한 가지 근심이었다. 젊은 여자는 늙은 여자를 한 가지 근심으로서밖에 인정하지 않았다.

늙은 여자는 실상 늙은 여자가 아니었다. 아직 환갑도 안되었고 소녀처럼 혈색 좋은 볼과 검고 결 좋은 머리와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젊은 여자를 며느리로 맞을 때는 더 젊었다. 하객들은 동서간처럼 보이는 고부간이라고 수군댔었다.

시집은 지 며칠이 지나도록 젊은 여자는 늙은 여자를 결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꼭 불러야 할 기회는 젊은 여자 쪽에서 교묘하게 피했기 때문에 늙은 여자는 그걸 별로 부자연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여자는 친구를 초대했다. 친구들은 오이 소박이 맛을 특히 칭찬하면서 누가 어떻게 담갔는가를 알고 싶어했다. 그것은 늙은 여자의 솜씨였다.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가 우리 어머니가 담그셨다고 그래주길 가슴 두근대며 기다렸다. 그러나 젊은 여자는 간결하게 말했다.

“우리 집 노인네 솜씨야.”

늙은 여자는 그 말이 섭섭해 며칠 동안 입맛을 잃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시작에 불과했다. 감기 기운만 있어 배도 노인네가 옷을 얇게 입으시니까 그렇죠. 화장실만 자주 들락거려도 노인네가 과식을 하시니까 그렇죠. 질긴 거나 단단한 걸 먹으려 해도 노인네가 그걸 어떻게 잡수실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 여자는 모든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나하나 간섭받으면서 늙은 여자로 만들어졌다.

그러다가 젊은 여자는 아이를 낳았다. 늙은 여자에게 손자가 생긴 것이다. 그때부터 ㉠젊은 여자는 늙은 여자를 할머니라고 불렀다. 늙은 여자의 아들까지 덩달아서 할머니라고 불렀다. 마땅히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 사람들이 할머니라고 부르기 위해 대화의 방법까지 간접적인 것으로 고쳐 나갔다. 할머니 진지 잡수시라고 해라. 할머니 그만 주무시라고 해라. 할머니 전화 받으시라고 해라. 이런 식이었다.

오늘 아침에도 늙은 여자는 깨어서 누워 있었다. 늙은 여자의 방은 아파트의 방 중 바깥으로 창이 나지 않은 단 하나의 방이었기 때문에 밝이 어느 만큼 밝았나를 알 수 없었다. 문은 부엌으로 나 있었다. 그 방은 방이 아니라 [골방]이었다. 늙은 여자는 눈감고 창밖의 어둠이 균청색으로, 남빛으로, 옅어지면서 창호지의 모공을 통해 청량한 샘물 같은 새벽바람이 일제히 스며들던 옛집의 새벽을 회상했다. 그 여자의 회상은 회상치곤 아주 사실적이었다. 아파트촌의 새벽이 그 여자의 회상을 따라 밝아왔다. 부엌에서 그릇 부딪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할머니 일어

나시라고 해라 하는 젊은 여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늙은 여자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다.

- 박완서, 「황혼」 -

26. 위 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섬세하고 치밀한 심리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작품 내부에 있는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술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③ 독백을 대화 형태로 가장하여 인물이 처한 갈등 상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다양한 등장인물을 설정하여 계층 간에 일어나는 갈등 양상을 폭넓게 그려 내고 있다.
- ⑤ 연관된 사건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27.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심리적인 거리가 멀어서
- ② 호칭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 ③ 시어머니를 ‘어머님’이라고 부르기 꺼려서
- ④ 집안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 ⑤ 시어머니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28. [골방]에 대한 독자의 추측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통적인 효 사상과는 거리가 있군.
- ② 늙은 여자의 외로움이 깊어가는 공간이군.
- ③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공간이군.
- ④ 늙은 여자의 활동이 제한적임을 암시하는군.
- ⑤ 시계가 없으면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없겠군.

29. <보기>를 참고하여 위 소설을 소개하는 글을 쓰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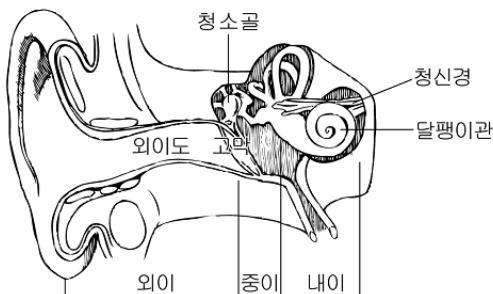
—<보 기>—

박완서의 소설은 개인이 겪는 슬픔과 기쁨, 성공과 실패가 사회 현실의 전체적인 맥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 준다. 박완서는 구체적인 생활 체험에 뿌리를 둔 직관력과 섬세한 언어 감각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라는 추상 형태를 생생하게 빚어내는 데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작가의 전반적인 주제 의식은 개인과 사회가 도덕적으로 마비되고 정신적으로 붕괴되는 원인을 파헤치는 데 있다.

- ① 개인의 문제로 외면하기에는 너무나 커져 버린 노인 소외 문제를 다룬 소설입니다.
- ② 늙은 여자의 개인적 불행이 잔잔한 파도처럼 밀려와 눈시울을 적시게 하는 소설입니다.
- ③ 쓸쓸하게 늙어가는 한 여자의 슬픈 노년이 날카로운 송곳처럼 가슴을 찌르는 소설입니다.
- ④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려는 한 늙은 여자의 노력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줘야 할 소설입니다.
- ⑤ 같이 산다고 모두 다 가족은 아닙니다. 가족 간의 메탈라 가는 정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체가 진동하면 소리가 만들어진다. 이 중 주파수가 16Hz에서 20,000Hz 사이인 소리를 사람이 들을 수 있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소리가 귀를 통해 뇌로 전달되어 분석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소리는 외이와 중이를 거쳐 내이로 전달되고 내이에서 주파수별로 감지된다. 이후 각각의 정보는 청신경을 통해 뇌간으로 간 다음 뇌의 양측 측두엽으로 전달되어 최종 분석되는 것이다.



귀는 위의 그림처럼 귓바퀴와 외이도를 포함한 외이, 고막과 청소골로 형성된 중이, 주파수별로 소리를 감지하는 내이로 나뉜다. 물렁뼈로 이루어진 귓바퀴는 소리를 모아서 외이도로 전달한다. ㉠외이도는 고막과 함께 한쪽이 막힌 공명기 역할을 하여 일정 영역대의 소리 크기를 증폭해 준다.

중이에는 고막과 세 개의 단단한 뼈인 청소골이 있다. 고막은 외이도를 거쳐 도달한 진동 에너지를 모으고 증폭시켜 청소골로 전달한다. 증폭된 진동 에너지가 청소골을 울리고 청소골은 지렛대 같은 원리로 진동을 더욱 증폭시켜 내이 안의 림프라는 액체에 전달한다. 청소골의 작용 없이 진동 에너지가 림프가 차 있는 내이에 직접 전달된다면 공기과 액체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진동 에너지의 대부분이 반사되고 일부만이 내이로 전달될 것이다. 이렇게 고막과 청소골은 서로 다른 물질 사이에서 중계자 역할을 하여 에너지의 손실을 줄인다.

내이는 단단한 뼈로 둘러싸여 있는데 달팽이 껍질과 유사한 모양이기 때문에 달팽이관이라는 별명도 있다. 달팽이관의 안에는 기저막이 있는데 이 위에 코르티기관이 존재한다. 코르티기관에는 털세포가 들어 있으며 이 세포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 에너지를 받아 주파수별로 소리 정보를 ㉡나누어 감지하고, 이를 청신경에 전달한다. 이 때 고주파 소리는 기저부에서 감지되고 저주파 소리는 첨부에서 감지된다. 기저부는 달팽이 껍질 모양의 넓은 쪽에, 첨부는 끝부분인 좁은 쪽에 해당한다.

3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외이와 중이는 소리를 모으고 증폭시키는 기관이다.
- ② 중이를 통해 전달된 소리는 내이에서 주파수별로 감지된다.
- ③ 중이는 서로 다른 물질 사이에서 에너지의 손실을 줄여 소리를 증계한다.
- ④ 내이는 중이에서 전달되는 소리를 받아들이기 쉽게 물렁뼈로 둘러싸여 있다.
- ⑤ 내이에는 소리를 나누어 감지하고 전달하는 세포가 있다.

31. 위 글로 보아 <보기>의 '소음성 난청'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알맞은 것은?

—<보 기>—

미국의 청각 개선 연구소(BHI)는 16~34세의 MP3 플레이어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꼴로 이어폰을 벗어도 계속 귀에서 소리가 울리는 '소음성 난청'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소음성 난청'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고주파 음역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다.

- ① 고막의 손상
- ② 첨부의 손상
- ③ 기저부의 손상
- ④ 청소골의 손상
- ⑤ 측두엽의 손상

32. ㉠에 나타나는 현상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창문을 닫으면 밖의 소리가 작게 들린다.
- ② 번개가 먼저 치고 천둥소리는 나중에 들린다.
- ③ 빈 병에 입을 대고 불면 낮은음이 크게 들린다.
- ④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은 후 손을 떼면 날아간다.
- ⑤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 몸이 앞으로 쏠린다.

33. ㉠과 관련하여 ‘나누다’의 다양한 의미를 찾아보았다. 각각의 의미와 이를 활용하여 만든 예문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미	예문
①	주고받다	두 사람이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②	함께 하다	선생님은 홀짜으로 편을 나누었다.
③	분배하다	자금을 댄 주주들과 이익금을 나누었다.
④	함께 먹다	변변찮은 음식이나마 같이 나누고 싶구나.
⑤	가르다	수박을 두 쪽으로 나누어 남동생과 먹었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S#72. 탄광 목욕탕 전경

옷을 벗고 목욕을 하러 들어가는 광부들의 탈의실 전경.

계장 천수 형님~ 천수 형님~ 손님 오셨어요.

사람들을 둘러보는 현우. 용석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고 대신 검은 얼굴을 한 사람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현우를 돌아본다. ‘천수 형님’을 외치는 소리에 자욱하게 끼어 있는 ㉠수증기를 뚫고 한 명이 다가온다.

천수 (옷을 다 벗은 채로) 누가…….

현우 안녕하세요? 저 용석이 관악부 지도교사입니다.

용석 아버지, 왜 왔는지 알겠다는 표정을 짓지만 까매서 잘 보이지 않는다. 악수를 건네는 손.

S#73. 사무실 옆, 테이블

깨끗해진 모습의 용석 아버지.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현우. 잠시 후 종이컵 두 개와 ㉠소주 뒷병, 김치 한 종이를 가져오는 용석 아버지.

천수 저 안에 들어갈 때 말야. 인차를 타고 들어가거든? 저거 보이지, 노란색 차. 저 안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인생은 30세 때는 30키로, 40에는 40키로, 50에는 50키로로 간다구. 용석이 그 놈, 지금 어릴 때 저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게 아니었나 부네 싶으면 늦은 거 아닙니까?

현우 네……. 근데 용석이는 소질이 있습니다.

천수 소질……. 나도 있었지. 나도 안 해 본 거 없어요. 용석이 가 얘기 합니까? 나도 연주 생활을 좀 해 봤어. 부산에서…….

음악이란 거……. 좋지……. 술에 취해 가지구 집에 들어 와서 용석 에미한테 나팔을 불어 주면 술주정을 집에까지 와서 하나 고 하면서도 좋아했지. 글썄 그 재미로 나 같은 놈한테 불어살 았는지도 모르지만……. 호강 한 번 못해 보고 그렇게 살다가 저거 하나 놓고 죽었어. ‘부’짜가 들어가는 직업은 사람이 할 것이 아닌 거예요. 파출부, 청소부, 잡부, 광부! 용석이 녀석은 ‘사’짜 들어가는 직업을 갖게 하고 싶어요. 검사, 의사, 박사, 안 되면 최소한 장사라도 해야 할 거 아니요. 장사!

현우 악사…….

천수 (현우를 패리며) 내가 두려운 게 뭔지 아쇼? 저 놈이 클 때까지 옆에서 지켜 주지 못하면 어쩐나 하는 거요. 저 놈 클 때까지는 옆에 있어 줘야지. 그게 내 지금 하나 남은 바람이 요.

현우 아이의 꿈을 꺾으시면 꼭 그렇지도 않죠…….

천수 꿈? 선생님은 꿈이 뭐니까?

현우 예?

천수 하긴, 선생님은 훌륭한 부모님 만나서 꿈게 자라면서 꿈을 이룬 거겠지. 우리 같은 놈들은 꿈도 가려서 뛰야지. (꿈을 꾸는 눈빛으로 소주를 마시고) 꿈꾼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자식 생각 부모보다 더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애는 보내지 않을 테니 그리 아쇼. 미안해서 그러니, 이거나 한 잔 더 하구 갑시다.

현우 …….

(중략)

S#74. 거리

학교 밖에 서서 현우를 기다리는 용석은 안대를 하고 있다.

㉡눈 쌓인 거리를 걷는 현우와 용석.

현우 이번엔 너야?

용석 (눈이 간지러운지 굵적굵적) …….

현우 에이 정말……. 드럽게.

용석 뭐 어때요? 차……. 어떻게 됐어요?

현우 니네 아버지……, 만나 뵈니까 누군지 알겠더라. 지난번엔 감감한 밤이라 그러구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얼굴을 잘 못 알아봤는데…….

용석 예?

현우 옛날에는 아주 유명하셨던 분이야.

용석 그래요?

현우 응.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암스트롱의 ‘헤븐스 도어’라는 곡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곡을 제대로 연주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고들 했거든……. 바로 니네 아버님이 야.

용석 (흐뭇해서 웃으며) 난 다 뺨인 줄 알았는데…….

현우 야! 누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뺨을 치는 아버지가 어딴냐? 용석아. 아버지 말씀두 일리가 있더라구. 난 아버님이 용석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몰랐어. 그냥 반대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할 말이 없더라.

용석 …….

(중략)

S#79. 갯도

광부들을 싣고 나오는 노란색 인차. 하얀 입김들을 쏘아 내는 사람들. 멀리 어둠 끝에 지상으로 통하는 작은 빛줄기가 보이기 시작한다. 점점 다가오는 빛줄기. 그 빛을 타고 관악 연주도 조금

씩 들리기 시작한다. “이게 뭐여? 댜 소리여?” 웅성웅성하는 사람들. 인차를 타고 밖으로 나와 보면, 강도 중앙 광장에서 아이들이 연주를 하고 있다.

아이들의 연주가 울려 퍼지는 ㉠중앙 강도. 어떤 아버지들은 잠시 보다가 자기 갈 길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아버지들은 모자를 벗고 아이들의 음악을 끝까지 들을 채비를 하기도 한다. 조금 슬픈 듯 서정적인 음악. 연주하는 아이들의 얼굴……. 현우의 지휘도 어느 때보다 힘차고, 심벌즈도 박자를 제대로 찾는다.

하늘에서 ㉡검은 비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다. 아이들의 연주를 보던 광부들의 얼굴에도 검은 비가 떨어지고, 묵묵히 아이들의 연주를 듣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의 검은 얼굴이 비로 씻겨 내려가고……. 용석이를 보고 있는 용석 아버지. 용석이도 힘차게 연주를 하며 아버지를 보고 있다.

후략 줄거리 - 용석이를 포함하여 관현악단의 모든 아이들이 연습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관현악 경연 대회에 참가한다. 현우의 지휘에 맞추어 아이들의 힘찬 연주가 대회장에 울려 퍼진다.

- 윤재근 외, 「꽃 피는 봄이 오면」 -

3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들은 모두 내면 심리와 다르게 말하고 있다.
- ② 일상적인 말투를 사용하여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③ 장면이 전환될수록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④ 인과 관계를 고려하여 사건을 역순으로 배열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을 통해 인물의 하루 의식을 극대화하고 있다.

35. 위 글을 영화로 제작할 때, 연출자의 주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S#72 : 천수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손을 내미세요.
- ② S#73 : 현우는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연기해 주세요.
- ③ S#74 : 용석은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머금은 것이 좋겠지요.
- ④ S#79 : 광부 중 일부는 무리지어 있는 광경을 연출해 주세요.
- ⑤ S#79 : 아이들은 자신감이 있는 모습으로 연주해 주세요.

36.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보 기>—

영화에서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배경과 소품 등의 의도적인 장치를 사용한다. 이 작품에서도 탄광촌 사람들의 힘겨운 일상과 인물들 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이러한 장치가 사용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족과 즐거운 마음으로 해외 여행을 떠날 때 비행기 탑승 전에 안전 검색을 받기 위해 지나가야 하는 문이 있다. 그 문을 통과하면 공항 직원이 밤주걱처럼 생긴 막대기로 온몸을 뒤진다. 금속이라면 무엇이든 귀신같이 찾아내는 이 기계는 금속 탐지기다.

그렇다면 금속 탐지기는 어떻게 금속을 찾아내는 것일까?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반대로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발생한다. 이 현상을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한다. 한편 구리판이나 동전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흐르는 길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전류가 소용돌이 모양으로 흐르는데, 이러한 전류를 ‘맴돌이 전류’라고 부른다. 금속 탐지기는 이와 같은 현상들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다.

금속 탐지기 내부에는 커다란 코일과 작은 코일이 들어 있다. 이 중, 커다란 코일에 교류 전류를 흘리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 옆에 작은 코일은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 작은 코일이 금속을 찾는 검출기 역할을 한다.

금속 탐지기로 땅 속에 묻혀 있는 금화를 찾겠다고 하자. 큰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이 땅 속을 뒤지다가 금화가 있는 곳에 다다르면 금화에 맴돌이 전류가 발생한다. 금화는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금화에 맴돌이 전류가 흐르면 이번에는 금화가 자기장을 만들어 낸다. 이때 큰 코일 옆에 있는 작은 코일이 금화가 만든 작은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해 전기 신호를 보낸다. 물론 금화가 없는 지점에서는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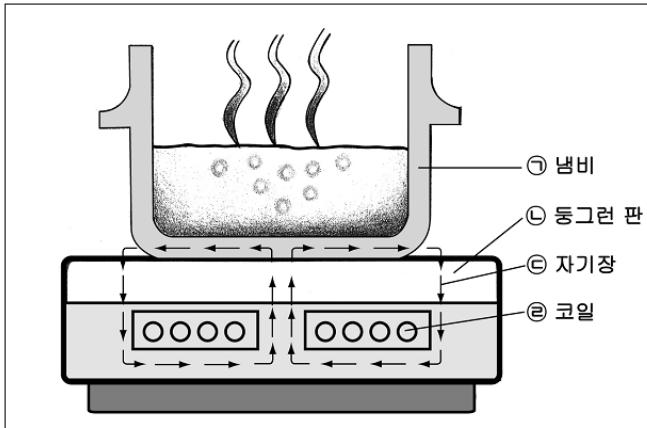
우리 주변에서 맴돌이 전류를 이용하는 다른 예를 찾는다면 유도 조리 장치를 들 수 있다. 유도 조리 장치는 맴돌이 전류를 이용해 냄비나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군다. 그래서 장작불이나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처럼 타오르는 불꽃도 없고 빌경게 달아오르는 코일 모양의 가열판도 없다. 둥그런 판에 금속 조리기를 올려 놓고 전원을 켜면 바로 금[가]속 용기가 뜨겁게 달아오른다. 유도 조리 장치 안에는 자기장을 만드는 코일이 들어 있다. 이 위에 금속으로 만든 냄비를 올려 놓으면 냄비 바닥에 맴돌이 전류가 흐르고 냄비의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한다. 따라서 유도 조리 장치 자체에는 전혀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돌솥 같은 부도체를 올려 놓으면 맴돌이 전류가 생기지 않아 조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맴돌이 전류는 금속 안에서 제멋대로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기 장치의 작동을 방해하는 존재였고 과[나]학자들은 되도록 이를 없애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요즘은 오히려 맴돌이 전류를 이용해 편리한 도구를 많이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3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발생한다.
- ② 금속 탐지기로 찾을 수 있는 물체는 도체에 한정된다.
- ③ 유도 조리 장치와 금속 탐지기는 맴돌이 전류를 이용한다.
- ④ 금속 탐지기의 작은 코일은 금속을 찾는 검출기 역할을 한다.
- ⑤ 전류가 흐르는 길이 정해져 있을 때 맴돌이 전류가 만들어진다.

38. [가]를 바탕으로, 그림을 보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금속이 아니면 조리를 할 수 없겠군.
- ② ㉡에서는 불꽃이 발생하지 않겠군.
- ③ ㉢에 의해 ㉠의 바닥에는 땀돌이 전류가 흐르겠군.
- ④ ㉡에 의해 ㉡에는 저항이 발생하겠군.
- ⑤ ㉡에 전류가 흐르면 ㉢이 발생하겠군.

39. [나]와 가장 가까운 사례는? [3점]

- ① 가시가 있는 장미 덩굴을 피해가는 양들을 보고 철사를 두 가닥으로 꼬아 철조망을 만들었다.
- ② 에너지 효율이 높은 형광등의 등장으로 사라져가던 백열등이 조명 효과를 살리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 ③ 술의 양을 알기 위한 맥주통 두드리기가 타진법과 청진기의 발명이라는 근대 의학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 ④ 끈적끈적하고 냄새도 지독해 악성 폐기물로 취급받던 콜타르가 방수제, 합성수지, 염료 등에 이용되고 있다.
- ⑤ 플라스틱의 썩지 않는 성질로 인해 환경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친환경 플라스틱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토끼 웃으며 가로되,
“그대의 말이 흡사하나 어젯밤에 내 꿈이 불길하기로 마음에 적이 꺼림칙하노라.”
자라 가로되,
“내 젊어서 약간 해몽법을 배웠으니 아무튼 그대의 몽사를 듣고저 하노라.”

토끼 가로되,
“칼을 빼어 배에 닿이고 몸에 피칠하여 보이니 아마도 좋지 못한 일을 당할까 염려하노라.”

자라 책망하여 가로되,

[가] “너무 길한 몽사를 가지고 공연히 걱정하는도다. 배에 칼을 닿였으니 칼은 금이라 금띠를 떨 것이요, 몸에 피칠을 하였으니 홍포를 입을 징조로다. 물망이 일국에 무거우며 명성이 팔방에 떨칠지니 이 어찌 공명할 질몽이 아니며 부귀할 대몽이 아니리오.

공자의 주공(周公)을 봄은 성인의 꿈이요, 장주(莊周)의 나비 된 꿈은 달관의 꿈이요, 공명의 초당꿈은 선각의 꿈이요, 그 외의 누구누구의 여간 꿈이란 것은 모두 개꿈이로되 오직 그대의 꿈은 몽사 중 제일 잘 꿈이니 그대 수중에 들어가면 만인 위에 거할지라, 그 아니 좋을손가?”

토끼 점점 곧이들고 조금조금 달아들며 ㉠장상(將相)의 인끈을 지금 당장 차는 듯이 기쁨이 얼굴에 가득하여 가로되,

“그대의 해몽하는 법은 짐짓 귀신이요, 사람이 아니로다. 소강절, 이순풍(李純風)이 다시 살아온들 이에서 더할손가. 아름다운 몽조가 이미 나타났으니 내 부귀는 갈 데 없거니와 그 러나 만경창파를 어찌 득달하리오?”

자라 대희하여 가로되,

“그대는 조금도 염려 말라. ㉡내 등에만 오르면 아무려한 풍량이랄도 파선될 염려 없고 순식간에 득달할 터이니 무엇을 근심하리오.”

토끼 심중에 기뻐하여 거짓 체모를 차려 가로되,

“그대 친구를 위하여 이렇듯 수고를 아끼지 않으려 하니 이는 친구를 사귀는 도리에 마땅함이나, 내 그대의 등에 오름이 어찌 마음에 미안치 않으리오?”

자라 크게 웃어 가로되,

“그대 오히려 줄직하도다. 위수에 고기 낚던 여상(呂尙)이는 주 문왕과 수레를 한가지로 뺐고, 이문에 문 지키던 후영이는 신릉군(信陵君) 상좌에 앉았으며, 부춘산에 발 갈던 염자룡은 한(漢)의 광무제와 한 베개에 누웠으니 지기를 위하는 자리에 준비와 귀천이 무슨 아랑곳인가? ㉢우리 이제 한가지로 들어가면 일생 영욕과 백년교락을 한가지로 할 것이니 무슨 미안함이 있으리오?”

토끼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그대의 높은 은혜는 진실로 백골난망이로다. 내 이 세상에 살때 못 당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닌 중 ㉣저 몫쓸 사람들이 일자총을 둘러메고 암상스레* 보챌 적에 송편으로 목을 따고 접시 물에 빠져 죽고 싶은 적이 한두 번 아니었나니, 나의 큰 아들놈은 나무하는 아이에게 무죄히 잡혀가서 구메밥*을 먹어가며 갇힌 지 이미 칠팔 년에 놓일 가망 바히 없고, 둘째 아들놈은 사냥개에게 물려가서 까막까치 밥이 된 지 지금 수년이라, 그 일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어찌하면 이 원수의 세상을 떠날꼬 하며 밤낮으로 생각하던 차에 천만의외로 ㉤그대 같은 군자를 만나 밝은 세상을 보게 되니, 이는 하늘이 지시하고 귀신이 도우심이라. 성인이라야 능히 성인을 안다 하더니 나 같은 영웅이 그대 곧 아니거든 헛되이 산중에서 늙을 뻔하였고 내 곧 아니거든 수중 백성들이 어진 관원을 만나지 못할 뻔하였도다.”

하고 의기양양하여 자라 등에 오르려 할 즈음에 문득 바위 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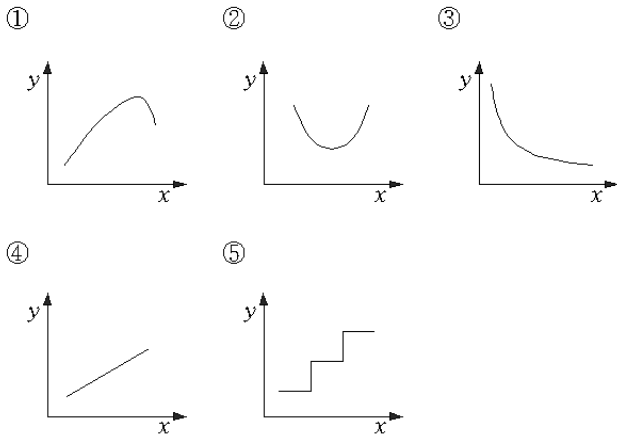
에서 너구리가 내달아 토끼를 불러 가로되,
 “토끼야, 너 어디 가느냐. 옛말에 위태한 곳에 들어가지 말라
 하였고 분수를 지키면 몸에 욕이 없다 하였으니, 줄지에 남의
 부귀를 탐내고야 재앙이 어찌 없을소냐. 고기 배패기에 장사
 지내기가 십상팔구이지.”
 하거늘 토끼 그 말을 듣고 두 귀를 쫑긋하며 발을 멈추고 주저
 하고 두려워하는 빛이 얼굴에 나타나는지라.

* 암상스레 : 남을 시기하고 샘을 내는 모양으로

* 구메밥 : 옥문 구멍으로 썬수에게 주는 밥

- 작자 미상, 「토끼전」 -

40. 위 글에 나타난 토끼의 심리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x축 : 시간, y축 : 기대감)



4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토끼의 욕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 ② ㉡ : 자라가 토끼에게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③ ㉢ : 토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려는 자라의 의도가 담겨 있다.
- ④ ㉤ : 토끼가 겪을 시련과 고난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 자라에게 고마워하는 토끼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42. <보기>와 [가]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춘향이 말하되,
 “단장하던 채경이 깨져 보이고, 창전에 앵도꽃이 떨어져 보
 이고 문 위에 허수아비 달려 뵈고, 태산이 무너지고 바닷물
 이 말라보이니 나 죽을 꿈 아니오?”
 봉사 이윽고 생각하다 왈,
 “그 꿈이 장히 좋다. 능히 열매가 열려야 꽃이 떨어지고 거
 울이 깨어질 때 소리가 없을손가. 문 위에 허수아비 달렸으
 면 사람마다 우리러볼 것이요, 바다가 마르면 용의 얼굴을
 능히 볼 것이요, 산이 무너지면 평지가 될 것이라. 좋다, 쌍
 가마 탈 꿈이로세. 불쌍한 춘향이 자네 걱정 마소, 조금만
 참게 고생 끝날 날이 멀지 않네.”

- 작자 미상, 「춘향전」 -

- ① 춘향과 토끼가 꿈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유사하다.
- ② 자라와 봉사의 해몽은 모두 꿈의 내용과 반대이다.
- ③ 춘향과 토끼는 모두 자신의 미래를 암시하는 꿈을 꾸었다.
- ④ 자라의 해몽은 인과성에, 봉사의 해몽은 유사성에 근거하고 있다.
- ⑤ 봉사의 해몽과는 달리 자라의 해몽에는 악의가 숨겨져 있음 을 알 수 있다.

43. 등장인물에 대한 독자의 평가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자라의 유혹에 빠져드는 과정을 보니 토끼가 당할 위험은 자 업자득(自業自得)이군.
- ② 자라에게 허풍을 떠는 것으로 보아 토끼는 외유내강(外柔內 剛)의 품성을 지녔군.
- ③ 자라가 여러 고사를 적절하게 인용하는 것으로 보아 목불식 정(目不識丁)이로군.
- ④ 토끼가 말하는 집안 사정으로 보아 토끼는 금의환향(錦衣還 鄉)을 꿈꾸어 왔군.
- ⑤ 토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자라는 살신성인(殺 身成仁)하는군.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원사의 동종에 새겨진 비천상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두 명의 선녀가 등장한다. 한 명은 와공후를, 또 한 명은 생황을 연주하고 있다. 이렇듯 생황이 선녀들과 함께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소리를 들어 보면 그 답을 금세 알 수 있다. 생황은 하모니카와 비슷한 음색을 지니고 있어 맑고 아름답다. 고음 부분은 밝고 투명한 느낌을 주며, 중음 부분은 부드러우면서도 현란하고, 저음 부분은 소박하면서 우렁차고 음량도 비교적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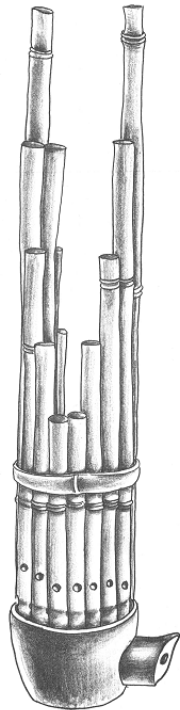
생황으로 연주하는 음악으로 ‘수룡음(水龍音)’이란 곡이 있는데, 전설의 동물인 용이 마치 물 속에서 울음을 우는 듯한 신비한 느낌을 준다고 한다. 선녀와 용, 그 이미지를 생황이라는 악기를 통해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 악기가 지닌 음색(音色)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황은 전통 취관 악기 중, 유일하게 두 가지 이상의 소리를 동시에 낼 수 있어 화음 연주가 가능한 악기이기도 하다. 이것은 악기의 독특한 생김새에서 비롯되었다. 둥근 박통에 십여 개의 대나무관(竹管)이 꽂혀 있고, 박통 옆으로 취구(吹口)가 나 있다. 이 취구에 입김을 불어 넣으면, 꽂혀 있는 죽관의 밑 부분에 달아 놓은 얇은 쇠창(金葉)이 진동해서 소리가 나게 된다. 이 죽관의 지공(指空)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음을 조절하는데, 관에 입김을 불어 넣는 원리로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소리를 낼 수 있다.

① 생황은 죽관의 숫자에 따라 13관, 17관, 19관, 23관, 36관 등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이름도 화생, 소생, 우생 등으로 다르게 불렸다. 그러나 지금은 17관 생황만 남아 있다. 17개의 죽관 중 하나는 윤관(潤管)이라 하여 소리를 내지 않으므로 그 음역은 12율(律) 4청성(淸聲)이 된다.

중국의 ‘수서(隋書)’, ‘북사(北史)’, ‘통전(通典)’ 등의 기록에 전하는 내용을 보면, 생황은 고구려, 백제 시대부터 연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로 연주된 것은 조선시대의 아악에 서였다. 생황은 실내에서 연주하는 잔잔한 음악에 주로 편성되어 연주되었으며, 독주나 합주보다는 음색이 잘 어울리는 단소와 함께 연주에 쓰이곤 하였는데, 이를 ‘생소병주(笙簫并奏)’라 한다.

생황은 조선 시대 이후 악기 제작 방법이 전수되지 않아 연주의 전승 및 연주자의 지속적인 양성도 어려웠다. 그래서인지 현대 창작 국악에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10여 년 전부터 연주자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 점차 생황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다양한 음악이 만들어지고 있어, 앞으로 생황의 활약이 보다 다양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는 의미에서 생황의 연주는 큰 의미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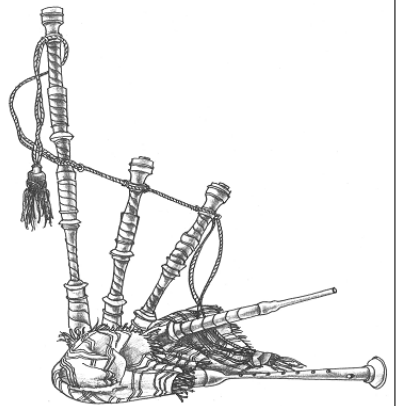
4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생황의 연주자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 ② 생황의 고음과 저음은 음색에 큰 차이가 있다.
- ③ 생황은 손가락으로 지공을 여닫아 음을 조절한다.
- ④ 생황은 단소와 음색이 잘 어울려 함께 연주되었다.
- ⑤ 생황의 박통에는 취구가 십여 개 나란히 뚫려 있다.

45. <보기>를 참고할 때, 생황과 백파이프의 공통점은?

—<보 기>—

백파이프(bagpipe)는 입이나 풀무로 공기주머니에 공기를 불어 넣어 그것을 밀어냄으로써 주머니에 달린 관의 리드*를 진동시켜 소리를 낸다. 이 중에서 선율관이 손가락 구멍을 통해 선율을 연주하는 동안, 나머지 드론 관(지속 저음관)들이 선율관에 맞추어 조율한 단일음을 지속적으로 낸다. 특히 드론 관은 연결 마디를 사용해 길이를 늘이거나 줄여 지속 저음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 리드(reed) : 목관 악기에서 소리를 내는 얇은 판

- ① 모든 관에서 소리를 낼 수 있다.
- ② 공기주머니를 진동시켜 소리를 낸다.
- ③ 소리를 만드는 관의 숫자가 동일하다.
- ④ 관의 연결 마디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 ⑤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소리를 낼 수 있다.

46. ㉠에 사용된 설명 방법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교향곡은 관현악으로 연주되는 보통 4악장 형식의 악곡으로 18세기 후반에 형식이 갖추어졌다.
- ② 정연한 형식과 균형감을 중시했던 고전 음악과의 작곡가로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대표적이다.
- ③ 가곡은 지역에 따라 우리나라의 가곡을 비롯하여 독일 가곡, 프랑스 가곡, 이탈리아 가곡, 러시아 가곡 등으로 나뉜다.
- ④ 벨칸토 창법은 주로 비강 공명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는데 비해 독일 창법은 구강 공명을 이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 ⑤ 바그너는 오페라가 종합 예술이므로 드라마로 실현될 때 참된 예술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대본도 극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채택하였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신문이나 잡지는 대부분 유료로 판매된다. 반면에 인터넷 뉴스 사이트는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와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무료로 제공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나) 이 현상 속에는 경제학적 배경이 숨어 있다. 대체로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의 언저리에서 결정된다. 생산 비용이 많이 들면 들수록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에 게재되는 기사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0에 가깝다. 기자가 컴퓨터로 작성한 기사를 신문사 편집실로 보내 종이 신문에 게재하고, 그 기사를 그대로 재활용하여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올리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 뉴스 사이트 방문자 수가 증가하면 사이트에 걸어 놓은 광고에 대한 수입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신문사들은 경쟁적으로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개설하여 무료로 운영했던 것이다.

(다) 그런데 무료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돈을 지불하고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 결과 언론사들의 수익률이 감소하여 재정이 악화되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언론사들의 재정적 악화는 깊이 있고 정확한 뉴스를 생산하는 그들의 능력을 저하시키거나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뉴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로 되돌아 올 것이다.

(라) 그래서 ㉠언론사들, 특히 ㉡신문사들의 재정 악화 개선을 위해 인터넷 뉴스를 유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을 현실화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소비자들은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그 상품의 가격이 얼마 정도면 구입할 것이고, 얼마 이상이면 구입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선을 긋는다. 이 선의 최대치가 바로 최대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이다.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한 번 각인된 최대지불의사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인터넷 뉴스의 경우 오랫동안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었고, 그러는 사이 인터넷 뉴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최대지불의사도 0으로 굳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료로 이용하던 정보를 유료화한다면 소비자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 불만을 토로할 것이다.

(마) 해외 신문 중 일부 경제 전문지는 이러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그들은 매우 전문화되고 깊이 있는 기사를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유료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이들 사이트의 기사를 이용하고 있다. 전문화되고 맞춤형된 뉴스일수록 유료화 잠재력이 높은 것이다. 이처럼 제대로 된 뉴스를 만드는 공급자와 제값을 내고 제대로 된 뉴스를 소비하는 수요자가 만나는 순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7.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 : 현상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③ (다) :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④ (라) : 현상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마) : 문제의 해결 방안을 시사하고 있다.

48. 글쓴이의 견해에 바탕이 되는 경제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제적 이해 관계는 사회 현상의 변화를 초래한다.
- ②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한다.
- ③ 소비자들의 최대지불의사는 상품의 구매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④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격은 상품 생산의 비용과 가까운 수준에서 결정된다.
- ⑤ 적정 수준의 상품 가격이 형성될 때, 소비자의 권익과 생산자의 이익이 보장된다.

49. 위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정보를 이용할 때 정보의 가치에 상응하는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 ② 현재 무료인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유료화하려면 먼저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기사를 제공해야만 해.
- ③ 인터넷 뉴스가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으니, 신문사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만은 아니야.
- ④ 인터넷 뉴스 사이트 유료화가 정확하고 공정한 기사를 양산하는 결과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 ⑤ 인터넷 뉴스만 보는 독자들의 행위가 질 나쁜 뉴스를 생산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니까, 종이 신문을 많이 구독해야겠어.

50. 단어들의 관계가 ㉠ : ㉡과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 | |
|-----------|-----------|
| ① 식물 : 동물 | ② 예술 : 문학 |
| ③ 책방 : 서점 | ④ 추위 : 더위 |
| ⑤ 포도 : 사과 |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